

『天請問經』에 대한 考察*

A Study on *Cheoncheongmungyeong*(天請問經)

김 은 미 (Kim, Eun Mi)**

◁ 목 차 ▷

- | | |
|---------------------|---------------------|
| 1. 서 론 | 3.1 敦煌本 『天請問經』의 校勘 |
| 2. 『天請問經』의 계통과 구성체제 | 3.2 大藏經本 『天請問經』의 校勘 |
| 2.1 유래와 漢譯 | 3.3 『天請問經』의 주석서와 變文 |
| 2.2 계통분류 | 4. 결 론 |
| 2.3 구성체제의 특징 | <참고문헌> |
| 3. 현전본 『天請問經』의 분석 | |

< 초 록 >

이 연구는 『天請問經』이라는 불교경전의 구조적 특징을 정리하고, 계통을 파악하며, 敦煌寫本, 漢譯大藏經의 교감을 통해 현전하는 문헌자료의 상황을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다.

『天請問經』은 玄奘에 의해 645년 인도로부터 原典이 수입되었고, 648년 漢譯된 582字 분량의 小乘單譯經이다. 大衆에게 修戒와 布施라는 실천적인 教義를 설파하기 위해 번역된 경전이다. 문장의 구조는 동일한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특징을 보이며, 내용은 『出曜經』 및 『雜阿含經』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敦煌本 『天請問經』은 모두 寫本이다. 다른 짧은 경전들과 함께 合本 형태를 이루는데, 죽은이의 冥福을 빌거나 살아있는 사람의 長壽와 福을 비는 내용의 경전들과 함께 필사되어 있다. 大藏經本으로는 高麗大藏經의 初雕本과 再雕本, 중국의 磧砂藏을 중심으로 자형 및 내용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초조본은 開寶勅版大藏經을 底本으로 板刻되었으며 재조본은 초조본의 翻刻本임을 확인하였다.

註釋書인 『天請問經疏』는 현재 총 3種이 공개되었는데 특히 新316는 高麗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수록되어 있는 文軌의 註釋이다. 斯1397號 『天請問經變』은 變文이 아닌 『天請問經』의 내용을 그린 벽화 榜題의 底稿로서 필사된 것이었다.

要語: 『天請問經』, 『天請問經疏』, 『天請問經變』, 敦煌本, 高麗大藏經初雕本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2-A00091).

** 고려대장경연구소 돈황팀 전임연구원(eunmik70@hanmail.net)

접수일: 2010년 5월 29일 최초심사일: 2010년 6월 2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16일

<ABSTRACT>

This study arrang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heoncheongmungyeong* (*Devatāsūtra*), a Buddhist scripture, examined its system and analyzed the existing bibliography by comparing the text of Dunhuang(敦煌) Copy with Chinese-translation of *Daejanggyeong*(complete collection of Buddhist Scriptures).

Cheoncheongmungyeong is one of the scriptures of Eighteen Schools of India imported by Xuanjiang(玄奘) from ancient India in 645 A.D. and translated into 582 Chinese characters in 648 A.D. This scripture was translated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practical Buddhism doctrines, that is, teaching of Buddhist commandments and almsgiving. The structure of its text shows the repetition of the same terms, and many of its contents are the same with those of *Chulyogyeong*(出曜經) and *Japahamgyeong*(雜阿含經).

All the Dunhuang(敦煌) copies of *Cheoncheongmungyeong*, disclosed up to now, are manuscripts. They were bound together with other short scriptures which prayed for the happiness of the dead and the longevity and fortunes of the living persons. The printing types and contents of *Daejanggyeong*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first and the second editions of *Tripitaka Koreana*(高麗大藏經)and the Qishazang(磧砂藏) of China. This study found that the first-carved edition was carved, based on *Gaebochikpan Daejanggyeong*(開寶勅版大藏經) and the second-carved edition was re-carved on the basis of its first-carved edition.

Three kinds of *Cheoncheongmungyeong-so*, which is the annotations of *Cheoncheongmungyeong*, were found up to now. Particularly, Sin 316(新316) is the annotation for the writing model recorded in *Sinpyeon jejonggyojang chongrok*(新編諸宗教藏總錄) of Uicheon in the Goryeo Period. *Cheoncheongmungyeong-byeon* of Sa 1397(斯1397號) was not Bianwen(變文), but the transcription of the text quotations(榜題) on the wall paintings which illustrated the contents of *Cheoncheongmungyeong*.

Key words: *Cheoncheongmungyeong*, *Cheoncheongmungyeong-so*, *Cheoncheongmungyeong-byeon*, Dunhuang edition, the first-carved edition of *Tripitaka Koreana*

1. 서론

현전하는 「天請問經」은 다양한 종류의 문헌자료가 전하고 있다. 敦煌本 寫經을 비롯하여 刊本으로 고려대장경 初雕本과 再雕本이 모두 전한다. 아울러 「天請問經」에 대한 註釋書인 「天請問經疏」와 講唱臺本으로서 재구성한 「天請問經變」이 있다. 현전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헌자료를 통해 경전의 내용은 짧지만 이 경전이 중국 佛敎經典史에서 갖는 의미가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天請問經」은 582자로 이루어진 짧은 분량의 경전으로서 5言 偈頌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문장의 구성면에서 동일한 글자를 반복하여 對句를 이루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중국 唐代의 번역승 玄奘이 서역의 구법여행을 통해 수집하여 고국에 가져온 범어 경전 중에서 部派經典으로는 첫 번째 번역본이다. 그러나 이 경전에 대한 연구 성과는 「天請問經變」, 「天請問經疏」를 중심으로 한 세 편의 논문이 있을 뿐이며¹⁾ 「天請問經」 경문의 구성이나 내용, 번역의 배경 및 의미 그리고 현전하는 寫本과 刊本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은 아직 없었다. 그리고 이 경전에 대한 기존의 정보는 「法句經」과 유사한 경전이라는 소략한 사전적 정의만이 제시되었을 뿐이며, 더구나 이러한 기존의 정의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도 없었다.

이 연구는 다양한 문헌자료가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된 바 없는 「天請問經」이라는 불교경전의 구조적 특징을 정리하고, 계통을 파악하며, 敦煌寫本과 漢譯大藏經의 교감을 통해 현전하는 문헌자료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경전으로부터 파생된 주석서와 변문의 내용 및 그 문헌들의 가치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문헌학, 불교학, 중문학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王惠民, “關於「天請問經」和 天請問經變的幾個問題,” 「敦煌研究」(1994. 4); 李洙, “敦煌壁畫中的〈天請問經 變相〉,” 「敦煌研究」(1991. 2); 十時淳一, “敦煌莫高窟の經變圖配置より見た八-九世紀の佛敎受容について-天請問經及び天請問經疏の寫本の一分析,” 「史學研究集錄」28(2003. 3), 國學院大學院.

2. 『天請問經』의 계통과 구성체제

2.1 유래와 漢譯

『天請問經』은 중국의 대표적인 역경승 玄奘(602~664)의 번역본이다. 중국에는 2세기경 불교경전의 漢譯을 시작한 이래 역대로 수백 명의 譯經僧이 있었으며, 그 중 5세기 초의 鳩摩羅什, 6세기 중엽의 眞諦, 7세기 중엽의 현장, 8세기 중엽의 不空을 4대 역경가로 꼽는다. 이 4대 역경가 중에서도 내용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모두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인물이 현장이다. 漢譯의 내용적인 면에 볼 때 현장 이후의 번역본을 新譯, 그 이전을 舊譯이라 하여 시대구분의 기점이 될 정도로 佛經 漢譯의 역사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 양적인 면에서도 총 75부 1335권의 산스크리트어 原典을 漢譯하였다. 이는 역대 어떤 역경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으로서, 대장경목록의 기준이 되고 있는 『開元釋教錄』에 수록된 입장목록 5048권의 27%에 해당하는 분량이다.²⁾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玄奘 개인의 능력과 노력 뿐 아니라 조직적인 체제로 그를 도왔던 우수한 인력들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현장이 서역으로부터 귀중한 보물들을 싣고 귀국하였을 당시 당나라 황실은 현장의 경험과 그가 가져온 귀중한 불교 문물들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였다. 唐代 초기의 시대적 분위기는 서역과 교류가 활발했고, 수도인 장안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당태종은 현장이 가져온 서역 문물에 대해 불상과 불사리의 물질적인 가치 이상의 것, 즉 불교사상과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불경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

태종은 현장이 가져온 원전 불경의 번역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중국에서 불교경전의 번역에 국가의 지원이 있었던 것이 처음은 아니었으나 현장에게 만큼 대대적인 지원은 없었다고 평가된다. 貞觀 19(645)

2) 李殷漢, “玄奘의 生涯와 譯經에 관한 研究,” 『宗教哲學論文選集』 172 (서울: 열린문화사, 2007), 10.

년 3월 이후 중국 전역에서 大·小乘에 정통한 승려 23인을 모집하여 불경번역에 최적의 환경이 제공되었다. 현장의 번역은 현장 개인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들과 역경사업을 함께 하였던 역경승들의 공동 작업이었다. 역경장은 수 십 명의 역경승들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였으며,³⁾ 玄奘은 역경작업을 주도하고 통솔하였다. 이는 당시 玄奘을 중심으로 일군의 학파라 이를 만한 집단이 존재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들은 전폭적인 국가지원 아래 조직된 當代 최고의 知性집단이기도 했다.

「天請問經」의 번역에 관련한 인물로는 筆手를 맡았던 辯機가 있다. 그는 「大唐西域記」의 撰述者이다. 辯機는 초기 현장의 역경사업에서 매우 주요한 인물로써 「瑜伽論」의 證文이었으며, 「天請問經」 이전에 번역된 4개 경전의 筆手이기도 하다. 그런데 청천문경의 筆手를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은 역경참여자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당시 최초의 譯經院은 옥화궁에 있었는데 변기는 귀족과 결혼한 공주와 불륜이 황제에게 발각되어 648년 7월에서 649년 5월 사이에 극형에 처해졌다고 한다.⁴⁾ 「天請問經」은 辯機가 처형되기 몇 달 전 마지막으로 번역작업에 참여한 경전이기도 하다.

역대 漢譯불경목록의 집대성이라 평가되는 「開元釋教錄」의 분류에 따르면 「天請問經」은 ‘有譯有本錄’에 속한다. ‘유역유본록’은 인도로부터 전해지는 산스크리트어 원전이 확인되는 漢譯本을 모아놓은 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에 분류된 경들은 梵語로 쓰여진 原典과 漢譯本이 모두 확인되는 불경이다. 그러면 인도에서 저술한 원전 「天請問經」이 어떻게 중국에 들어와 번역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3) 이종철, 「중국 불경의 탄생: 인도 불경의 번역과 두 문화의 만남」, (서울: 창비, 2008), 120. 玄奘시대 역경장의 조직을 살펴보면, 梵語寫本을 읽으며 번역·강해를 맡았던 譯主, 번역문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던 證義, 사본을 제대로 읽었는지 검토하는 證文, 역주가 중국어를 몰라 번역을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원문 그대로 중국어로 음사하는 書字, 梵語音譯을 意譯으로 고치는 등의 번역문 교정자인 筆手와 綴文, 번역문을 다시 범어로 고쳐본 뒤 원문과 맞는지 대조함으로써 번역문의 타당성을 재검토했던 參譯, 길거나 중복되는 번역문을 간결한 문장으로 교정했던 刊定, 潤文, 번역문을 낭독하기 좋도록 교정했던 梵唄, 번역작업을 보호하는 고급관리로서 번역이 끝난 후 황제에게 번역본을 진상하였던 監護大使가 있었다.

4) 남동신, “玄奘의 印度 求法과 玄奘像의 추이,” 『불교학연구』 제20호(2008. 8), 196.

한다.

현장은 불경 眞本을 구한다는 목표아래 18년간(627~645)의 구법여행을 하였고 마침내 서역에서 수집한 520帙 657部の 原典佛經을 가지고 귀국하였다.⁵⁾ 이때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原典 중에 『天請問經』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경전은 그가 47세 되던 해인 648년 3월 20일에 弘福寺 翻經院에서 漢譯되었다.⁶⁾ 그리고 이후 다른 번역가의 異譯本이 없는 單譯經으로 현재까지 전해진다.

현장은 구법여행을 마치고 장안으로 돌아온 후 20여 년간(645~664) 가져온 원전을 漢譯하는데 그의 여생을 바쳤다. 648년은 長安에 변경원을 마련하고 번역을 시작하던 4년이 되던 해로 『천청문경』은 비교적 초기번역본에 해당한다. 또한 그 해는 현장의 초기 譯經의 대표작이라 일컬어지는 『瑜伽論』 100권의 번역이 마무리된 시점이기도 하다. 『유가론』은 현장의 구법여행의 동기가 되었다고 할 만큼 그의 번역본 중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경전이다. 현장의 年譜에 따르면 647년은 오직 번역작업에만 몰두했다고 하는데 이는 즉 『瑜伽論』 번역에만 온 힘을 기울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유가론』은 648년 5월에 번역이 마무리 되었으니 1년에 걸친 『瑜伽論』 번역의 완성을 2달 여 앞둔 시점에서 600字가 채 안 되는 짧은 분량의 『天請問經』을 번역한 것이다.

현장이 번역한 불경은 그가 서역으로부터 들여온 원전의 1/9에 해당하는 양이었다고 한다.⁷⁾ 따라서 1/9에 해당하는 『天請問經』은 수많은 경전 중에 우선적으로 선택되었다는 의미가 있으며, 또한 현장이 번역한 첫 번째 部派經典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5) 미즈노 고겐 著·이미령 譯, 『경전의 성립과 전개』 (서울: 시공사, 1996), 160. 현장이 들여온 원전은 大乘經 224部, 大乘論 192部이며 小乘部派들의 성전으로는 上座部の 經·律·論 15부, 大衆部の 經·律·論 15부, 三彌底部 즉 正量部の 經·律·論 15부, 彌沙塞部 經·律·論 22부, 迦葉遺部 經·律·論 17부, 法密部 經·律·論 42부, 說一切有部 經·律·論 67부였다.

6) 『開元釋教錄』 八卷. “天請問經一卷 <見內典錄貞觀二十二年三月二十日於弘福寺翻經院譯沙門辯機筆受>.”

7) 李殷漢(2007), 앞의 글, 61.

2.2 계통분류

「天請問經」의 계통에 대한 분석은 먼저 역대 漢譯佛經目錄에서 분류한 계통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天請問經」과 동일한 구절이 나타나는 불경을 찾아서 비교·분석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天請問經」이 수록된 역대 한역불경목록은 664년 「大唐內典錄」, 695년 「大周刊定衆經目錄」 그리고 730년 「開元釋教錄」이 있다.

「天請問經」이 최초로 등장하는 불경목록은 664년 道宣이 편찬한 「大唐內典錄」 10권이다. 도선은 현장의 역경작업에도 참여했던 인물이므로 이 목록은 현장의 門下生에 의해 정리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목록에서는 현재의 분류와 달리 「天請問經」을 大乘經典으로 분류하였다. 소승경전에 분류되어 있는 현재의 분류는 「開元釋教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대승경전으로 분류하였던 도선의 견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고 본다. 현장의 역경에 참여했던 인물이 대승경으로 분류한 것은 당시 「天請問經」이라는 경전이 어떠한 목적으로 선택되고 번역되었는가를 추정할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大周刊定衆經目錄」 15권은 695년 釋明佺 등이 편찬한 목록으로 「大唐內典錄」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역시 대승경에 분류하였다.⁸⁾ 그리고 이 목록에서 주목할 점은 「天請問經」이 歷代衆經舉要轉讀錄⁹⁾에 분류된 것이다. 歷代衆經舉要轉讀錄은 실제 독송을 위한 경전을 뽑아놓은 것으로 이 경전이 불교이론서, 사상서로서의 기능보다는 대중에게 독송되기 위해 漢譯된 경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다음으로 가장 정확한 한역불경목록의 집대성이라 평가되고 있는 「開元釋教錄」 20권은 開元 18(730)년 智昇이 편찬하였다. 이전 목록의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한 목록으로써 이후 漢譯大藏經 체제의 골조가 되었다. 수록된 「天請問經」 관련 정보들을 살펴보면, 「開元釋教錄」 入藏錄 즉 대장경에 포함되는 불경 중에서

8) 「大周刊定衆經目錄」 13卷 <見定流行入藏錄卷上> “大乘修多羅藏 四百五十一部 <一千八百七十三卷> 一百 八十八帙, 單譯經.”

9) 「大周刊定衆經目錄」 9卷 <歷代衆經舉要轉讀錄第四>.

聲聞三藏錄에 분류되어 있다. 聲聞三藏錄은 소승경전의 經·律·論 三藏錄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大周刊定衆經目錄」 등에는 대승경전부에 분류되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본 결과 소승경전임을 확인하여 기존의 분류를 바꿔 소승부에 옮겨 편집하였다'고 小註에 밝히고 있다.¹⁰⁾ 또한 小乘經單譯의 한권으로 분류되어 있다.¹¹⁾

마지막으로 고려대장경에서의 위치를 살펴보면 竟函에 속해 있다. 「大藏目錄」에서 竟함은 소승경전 중 單翻·單本の 단역경부의 마지막 函이다.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면, 「天請問經」은 현장의 문하생이 정리한 최초의 목록에서는 대승경전으로 분류되었으며 이후 내용의 교감을 거쳐 소승경전으로 개편되고 그 체제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어서 내용상으로 일치하는 경전을 찾아서 「天請問經」의 계통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먼저 「天請問經」에 대한 기초 정보로서 보편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 경전은 「法句經」과 유사한 경전으로서 「法句經」 泥洹品の '知足最富, 泥洹最樂'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정리되어 있다.¹²⁾ 욕심을 버리고 만족을 아는 것이 궁극적인 평안과 안락을 준다는 내용면에서는 이 두 경전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대장경의 전산화자료인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 시스템의¹³⁾ 검색어 기능을 이용해 동일한 구절의 경전을 살펴보면, 오히려 「出曜經」 卷第九 戒品第七의 「雜阿含經」 인용부 구절과 많은 부분 일치하는 것이 확인된다. 본문은 물론 도입부에 설법의 시기와 장소, 설법의 대상에 대한 설명부와 종결부에 천신이 부처에게 예를 갖추고 돌아가는 장면의 설명과 묘사의 구조까지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出曜經」은 「法句經」 계통의 번역본으로 4아함경과 기타 여러 경전에서 부처님의 말씀이나 계송 등을 뽑아 편집한 경전이다.

10) 「開元釋教錄」 11卷 <別分乘藏錄> <有譯有本錄> <聲聞三藏錄>. “第二右賢者五福天請問二經大周等錄皆編大乘經中今尋文理頗涉小宗故移編此.”

11) 「開元釋教錄」 20卷 <別分乘藏錄> <小乘入藏錄> <小乘經單譯>.

12) 小野玄妙, 「佛書解說大辭典」 第8卷 (東京: 大東出版社, 昭和43年), 107.

13) <<http://kb.sutra.re.kr>>.

<표 1> 「天請問經」 제8問과 다른 경전의 유사내용 비교

『別譯雜阿含經』 第一 初誦第一	『出曜經』 卷第九 戒品第七	『天請問經』
如是我聞 一時 佛在舍衛國 祇樹給孤獨園	昔 佛在舍衛國 祇樹給孤獨園	如是我聞 一時 薄伽梵在室羅筏國 住誓多林給孤獨園
時有一天 於其中夜 來詣佛 所威光照耀赫然甚明頂禮佛足在 一面坐而說偈言	爾時 世尊告諸比丘 有天至如來所 而問斯義	時有一天 顏容殊妙 過於夜分 來 詣佛所 頂禮佛足 卻住一面 是天 威光甚大 赫奔周遍 照曜誓多園林 天復請曰
何物火不燒 旋風不能壞 劫盡大洪水 一切浸爛壞 何物於彼所 而得不爛潰	何物火不燒 何物風不飄 何物風不動 何物水不漬	何物火不燒 風亦不能碎 非水所能爛 能浮持世間
男子若女人 所有諸財寶 以何方便故 王賊不能侵 是何堅牢藏 無能毀壞者	何物地不敗 何物王盜賊暴 雷所不損 何物在庫藏 不守不耗損	誰能與王賊 勇猛相抗敵 不爲人非人 之所來侵奪
爾時 世尊以偈答曰 福聚火不燒 旋風不吹壞 劫盡洪水浸 不能令腐朽	爾時 世尊告彼天曰 福火不燒 福風不動 福水不漬 福地不敗	世尊告曰 福非火所燒 風亦不能碎 福非水所爛 能浮持世間
男女有福聚 王賊不能侵 福是堅牢藏 無能侵毀者	福王賊不劫 暴雷無所害 福致諸庫藏 不守亦不損	福能與王賊 勇猛相抗敵 不爲人非人 之所來侵奪 天復請曰 我今猶有疑 請佛爲除斷 今世往後世 誰極自欺誑 世尊告曰 若多有珍財 而不能修福 今世往後世 彼極自欺誑
爾時 此天說此偈已 歡喜還宮	爾時諸天聞 佛所說歡喜踊躍 ... 時彼天人聞佛所說戢在心懷即從 坐起繞佛三匝忽然不現還於天上	爾時 彼天聞佛世尊說是經已歡喜 踊躍 數未曾有頂禮佛足即於佛前 欬然不現

몇 가지 단어의 사전적인 해설을 붙이면서 내용의 유사성을 검토해 보면, 먼저 『天請問經』의 도입부에 쓰여진 ‘室羅筏’라는 단어는 梵語 savatthi의 간략한 음역으로서 『出曜經』, 『別譯雜阿含經』에서 쓰인 ‘舍衛城’라는 단어와 동일어이다. 또한 ‘誓多林給孤獨園’과 ‘祇樹給孤獨園’도 같은 말이다. 『天請問經』에서 기록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장소를 이르는 용어인 室羅筏, 誓多林給孤獨園은 『出曜經』, 『別譯雜阿含經』에 나오는 舍衛城, 祇樹給孤獨園과 동일한 의미의 용어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용어상의 차이는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설법의 시간과 장소, 설법을 받은 대상자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계송에 나오는 火, 水, 王賊 등 주요한 단어들은 거의 중복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경전의 내용을 마감하는 부분도 흡사한 문장구성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것은 천청문경이 『雜阿含經』에서 분리되어 나와 독립 경전을 이루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앞서 말한 사전적 정의에서 『법구경』의 니원품과 유사 경전이라는 정보도 맞지만, 실제로 동일 구절을 검색·대교해 본 결과 『出曜經』 戒品 또는 『別譯雜阿含經』의 구절이나 구조와 훨씬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정보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2.3 구성체계의 특징

2.3.1 경전의 내용

『天請問經』은 5言 偈頌형식으로 구성된 582자의 짧은 불교경전이다. 내용은 天神과 부처님이 진리를 묻고 답하는 장면이 연극의 한 장면처럼 펼쳐진다. 구성은 천신이 부처님께 계송으로 올리는 9번의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 對句를 이루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경전의 주제는 9편의 질문과 대담으로 이루어진 계송 안에 담겨있으며, 질문과 대담을 하나로 묶어 아홉 부분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天請問經」의 전반부

	問	答
1	云何利刀劍	→ 麤言
	云何礪毒藥	→ 貪欲
	云何熾盛火	→ 瞋恚
	云何極重暗	→ 無明
2	何人名得利	→ 施者
	何人名失利	→ 受者
	何者堅鉀冑	→ 忍
	何者利刀杖	→ 慧
3	云何爲盜賊	→ 邪思
	云何智者財	→ 尸羅
	誰於天世間 說名能劫盜	→ 犯戒
4	誰爲最安樂	→ 少欲
	誰爲大富貴	→ 知足
	誰爲恒端嚴	→ 持戒
	誰爲常醜陋	→ 破戒

<표 3> 「天請問經」의 후반부

	問	答
5	誰爲善眷屬	→ 福
	誰爲惡心怨	→ 罪
	云何極重苦	→ 地獄
	云何第一樂	→ 無生
6	何者愛非宜	→ 諸欲
	何者宜非愛	→ 解脫
	何者極熱病	→ 貪
7	誰是大良醫	→ 佛
	誰能覆世間	→ 無智
	世間誰所魅	→ 癡
	誰令捨親友	→ 慳貪
8	誰復墜生天	→ 染著
	何物火不燒	→ 福
	風亦不能碎	→ 福
	非水所能爛	→ 福
	能浮持世間	→ 福
	誰能與王賊 勇猛相抗敵	→ 福
9	不爲人非人之所來侵奪	→ 福
	今世往後世 誰極自欺誑	若多有珍財 而不能修福 今世往後世 彼極自欺誑

<표 2>의 答부분을 살펴보면 재가의 불교 신자가 준수해야 할 10항의 훈계인 10戒의 내용이다. 10계는 1. 不殺生, 2. 不偷盜, 3. 不邪淫, 4. 不妄語, 5. 不綺語, 6. 不惡口, 7. 不兩舌, 8. 不貪欲, 9. 不瞋恚, 10. 不邪見이다.

<표 3>은 경의 후반부로서 주제는 탐욕과 번뇌에서 벗어나 解脫과 無生の 평안을 얻을 것이며, 布施의 실천을 통해 福을 받는 것이다.

불교가 중국에 어떤 형태로 정착되었는가를 생각함에 있어 지식인의 엘리트 불교 즉 지식층 불교와 일반 수준의 대중 불교 두 가지의 시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지식불교는 독서계급에 속하는 지식인의 종교이며 대중불교란 서민들의 불교신앙을 말한다.¹⁴⁾ 「天請問經」은 반복적인 문장의 구성 안에 간명한 주제를

담고 있다. 동일한 문장의 반복은 듣는 이로 하여금 핵심 사항을 분명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번역된 『유가사지론』은 철학불교의 개념서로서 번역하였다면 『天請問經』은 대중의 불교신앙을 위해 번역한 대중서이다. 또한 계통상 부과경전인 『出曜經』의 구절과 일치하여 소승경전에 해당하지만 전하고자 하는 중심주제에 비추어 보면, ‘修戒布施’라는 대승경전의 주요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번역한 경전이다. 수계보시의 주제는 앞서 소개한 같은 계열의 경전인 『出曜經』에서는 경문 중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¹⁵⁾ 이 경의 요점은 마지막 9번째 문답 계송에서 말한 布施에 있다. 즉 탐욕의 마음을 줄이고 보시의 실천을 통해 복을 쌓으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경전이다.

2.3.2 구성체제의 특징

이 경은 天神이 부처님께 偈頌으로 올리는 9번의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 계송이 對句를 이루는 구성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계송은 범어 불교문헌 중에 특정 음절수와 장단으로 조성된 韻文을 이르는 용어이다. 계송은 범어 伽陀 gāthā의 약칭과 중국의 한시체인 頌의 습稱이다. 梵文 불경을 漢譯할 때 상용되는 것은 兩句 8음절이며, 이 범문 계송이 漢譯되면서 4자, 5자가 각각 兩句, 兩行을 이루어서 보통 4구가 1계를 이루게 되었다.¹⁶⁾

<그림 1>을 보면, 『天請問經』은 5字 1句, 4句가 1偈를 이루는 계송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네모 칸으로 표시한 구역안의 좌우 글자들이 동일하게 일치하는 바와 같이 『天請問經』의 문장구성은 정교한 글자의 반복이 특징이다. 반복되는 문장들은 동일한 글자들이 정확히 같은 순서로 반복되고 있다. 질문과 대답을 한 쌍의 계송으로 묶어보면 천신의 계송과 부처님의 계송에 쓰인 단어들이 순서와 내용까지 정확히 일치하면서 정교한 對句를 이룬다. 이러한 구성은 읽는 이, 듣는 이로 하여금 운율의 점층적인 興起를 느끼게 한다. 아울러 같은 내용을

14) 平川彰 編著·楊氣峰 譯, 『佛敎研究入門』(서울: 經書院, 1993), 228.

15) 『出曜經』. “... 忽然不現, 還於天上. 修戒布施 作福爲福 從是適彼 常到安處.”

16) 이상미, 『진각혜심의 계송문학』(서울: 박이정, 2007), 22.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낸다.



<그림 1> 敦煌寫本「天請問經」문장 구성의 특징(伯2374號)

3. 현전본 「天請問經」의 분석

3.1 敦煌本 「天請問經」의 校勘

3.1.1 소장상황

3.1.1.1 소장상황과 문헌형태

돈황문헌의 문서번호는 黃永武 編, 「敦煌寶藏」,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民國

75[1986]年과 天津市藝術博物館 編, 『天津市藝術博物館藏 敦煌文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에 따른다.

<표 4> 「天請問經」의 소장상황

	문헌번호	경명	문헌형태	소장처 ¹⁷⁾	「敦煌寶藏」권차/면수
1	斯2089號	佛說天請問經	• 尾題: 佛說天請問經(첫 부분 일부 缺落)	스타인본	16/89
2	斯3916號	佛說天請問經一卷	• 尾題: 佛說天請問經(첫 부분 일부 缺落)		32/311
3	斯4119號	天請問經	• 天請問經,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의 合本(첫 부분 일부 缺落)		34/66
4	斯4548號	佛說天請問經	• 佛說齋法清淨經, 佛說天請問經의 合本. • 역자사항: 三藏法師玄奘奉 詔譯.		36/529
5	斯5367號	天請問經一卷	• 尾題: 天請問經一卷(전반부 缺落)		42/240
6	斯5458號	天請問經一卷	• 觀音經一卷, 佛說善惡因果經一卷, 般若波羅蜜多心經一卷, 佛說地藏菩薩經, 天請問經一卷의 合本. • 1面 4行, 1行 18~19字 折帖本.		42/676
7	斯5531號	佛說天請問經	• 妙法蓮華經卷第七, 佛說解百生怨家陀羅尼經, 佛說地藏菩薩經, 佛說天請問經, 佛說續命經, 摩利支天經, 佛說延壽命經, 佛說閻羅王經一卷, 般若波羅蜜多心經一卷의 合本. • 1面 4行, 1行 8~12字. 方冊本.		43/227
8	斯5675號	天請問經	전반부 缺落		44/321
9	斯5708號	天請問經一卷	殘片		44/391
10	津藝193	佛說天請問	• 佛說無常經, 佛說水月光觀音菩薩經, 佛說呪魅經, 佛說天請問의 合本. • 역자사항: 三藏法師玄奘奉 詔譯. • 發願文: 卅八日是四七祭願以家母馬氏作福一一見到目前災障消滅領受福田一心共養. • 包首: 佛說無常經等七卷(包首 아래 小字로 '爲亡母追福每祭一卷'이라는 표기 있음). • 필사년도: 顯德五年(958년).	天津市藝術博物館藏	「天津市藝術博物館藏 敦煌文獻」 91-92

「天請問經」에 대한 考察

	문헌번호	경명	문헌형태	소장처 ¹⁷⁾	『敦煌寶藏』 권차/면수
11	北4474號	天請問經	•역자사항: 三藏法師玄奘奉 詔譯. •般若波羅蜜多心經의 背面에 필사됨. 第 4問答 부분까지 필사되었고 이후는 필사하지 않음		83/307
12	北6661號	天請問經	第 7問答 부분까지 필사되었고 이후는 필사하지 않음	북경본	101/99
13	北8247號	天請問經	•佛說續命經, 延壽命經, 天請問經, 心經, 造塔功德經, 大乘四法經, 十想心經의 合本		109/406
14	伯2374	佛說天請問經一卷	•佛說延壽命經一卷, 佛說續命經一卷, 佛說天請問經一卷의 合本. •필사년도: 維大周顯德陸年(959年)四月八日.	펠리오본	102/62
15	孟00730號	天請問經	殘片		6/13
16	孟00729號	天請問經	殘片	러시아본	7/245
17	孟02321號	天請問經	殘片		9/41
18	孟02320號	天請問經	殘片		9/233

<표 5> 「天請問經」 관련문헌의 소장상황

문헌종류	문헌번호	경명	문헌상태	소장처	『敦煌寶藏』 卷次/面數
變文	北5408號 背面	天請問經變	思益梵天經變、天請問經變、梵王經 合本	북경본	91/411
	斯1397號 背面	天請問經	天請問經變 榜題의 底稿		10/407
	新316	天請問經疏	首尾完整		.
疏	伯2135號	天請問經疏	시작부 일부缺落	펠리오본	115/275
	北6662號	天請問經疏	앞부분 缺落	북경본	101/100

17) 20세기 초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열강에서 과건된 각국의 탐험대는 대량의 敦煌遺書를 자국으로 반출했으며, 이후로 돈황유서는 소장처별로 이름을 붙여 분류하고 있다. 스타인 본은 영국대영박물관 도서관, 펠리오본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러시아본은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 북경본은 북경 도서관 소장본이다. 이 밖에도 일본, 독일 등 세계 각국의 박물관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돈황유서가 있으며, 『돈황보장』에는 이를 散錄이라고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산록에는 「天請問經」이 없다.

지금까지 공개된 돈황유서 중의 『天請問經』은 총 18건이 조사되었다. 이 외에 『天請問經』과 관련된 문헌으로 변문 2건, 주석서 3건이 조사되었다. 모두 寫本이다. 18건 중에 러시아 소장본 4건은 모두 작은 종이조각 형태인 殘片들이다. 이처럼 내용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잔편들은 개별문헌의 교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全文이 남아 있으며 돈황사본 『天請問經』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斯4119號, 斯5458號, 斯5531號, 北8247號, 伯2374號, 津藝193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天請問經』의 관련 문헌인 주석서와 변문에 대한 분석은 이후 3장 3절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원본의 형태로 전해지는 新316은 아직 영인본 등으로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문헌이며, 다만 李際寧이 쓴 해제를 통해 그 형태 및 내용이 소개되었다. 의미 있는 자료이므로 李際寧의 정리를 반영하여 우선 소개하고자 한다.

위의 표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돈황본 『天請問經』의 특징은 먼저 형태면에서 보면 합본형태가 많다는 점이다. 경전의 분량이 짧기 때문에 다른 짧은 분량의 경전들과 함께 필사되었다. 전문이 전해지는 8건이 모두 다른 경전과 함께 필사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적게는 2종에서 많게는 9종이 합본되어 있다. 그 중 필사년도가 확인되는 본은 伯2374號, 津藝193 두 건이다.

이어서 돈황유서 중에서 의미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몇 개의 문헌을 중심으로 개별문헌의 형태와 내용의 특이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3.1.2 내용교감

① 斯4119號, 斯5458號, 斯5531號, 北8247號

斯4119號는 시작 부분이 일부 결락되었고 이어서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이 연이어 필사된 형태이다. 天地線과 界線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天神의 질문 偈頌과 부처님의 答 偈頌을 行을 바꿔 구분하였다.

斯5458號는 1. 觀音經一卷, 2. 佛說善惡因果經一卷, 3. 般若波羅蜜多心經一卷, 4. 佛說地藏菩薩經, 5. 天請問經一卷의 합본이다. 절첩본 형태로 장정되었으며

천지선과 계선이 그어져 있고 1면 4행, 1행 18~19字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경전을 하나로 필사하는 경우 경전과 경전 사이에 經名을 표기하고 줄을 바꾸고 여기에 더하여 몇 줄의 隔行을 두어 새로운 경전이 시작됨을 표시하는데 첫 번째 경전 觀音經一卷부터 네 번째 경전 佛說地藏菩薩經까지는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天請問經만 앞의 경전인 佛說地藏菩薩經의 尾題를 쓰고 行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1字 隔字만하고 經名과 내용을 연이어 필사하고 있다. 다른 경전에 비해 본문 계송의 배치가 정연하지 못한 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본의 경우 계송을 한 行에 2句 또는 4句를 일률성을 갖추어 필사한데 비해 이 절첩본은 그러한 글자 배치의 규칙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斯5531號는 1. 妙法蓮華經卷第七, 2. 佛說解百生怨家陀羅尼經, 3. 佛說地藏菩薩經, 4. 佛說天請問經, 5. 佛說續命經, 6. 摩利支天經, 7. 佛說延壽命經, 8. 佛說闍羅王經一卷, 9. 般若波羅蜜多心經一卷 이렇게 9개의 경전이 이어서 필사되어 있다. 계선 없이 1행에 11字, 1면에 4行씩 필사하였고 面과 面 사이에 실로 묶은 흔적이 보인다. 권축장이 아닌 방책본 형태로 묶여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 문헌은 경전의 쓰임에 따라 해당 경전을 편리하게 찾아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며, 아울러 각종 불교의식에 쓰려고 짧은 분량의 경전들을 모아 책으로 묶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北8247號는 1. 佛說續命經, 2. 延壽命經, 3. 天請問經, 4. 心經, 5. 造塔功德經, 6. 大乘四法經, 7. 十想心經 7개 경전의 합본이다. 천지선과 계선이 분명하고 정연하게 필사되어 있다. 빠진 내용을 行과 行사이에 보충해 넣은 傍書가 보인다.

위 합본들을 구성하는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亡者의 冥福을 빌거나 살아있는 사람의 장수와 복을 비는데 사용되었던 경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② 伯2374號

1. 佛說延壽命經一卷, 2. 佛說續命經一卷, 3. 佛說天請問經一卷의 3종의 합본이며 마지막에 佛說延壽命經이라고 전체 卷名을 명기함으로써 이 문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延壽命經」, 「續命經」은 도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僞本으로써 주제는 壽命의 延長이다. 주로 병든 이나 나이든 이들 즉 죽음과 가까워진 이들을 위해 쓰여진 불경이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天請問經』의 주제는 受戒布施를 통해 福을 쌓는 것이었다. 아마도 죽음을 앞둔 누군가를 위해 供養한 寫本임을 짐작할 수 있다. 發願記에 의하면 이 사경은 五代시기 後周 太祖 顯德 6(959)년 瓜州 즉 돈황지역의 선종사원이었던 永典禪院의 禪師 惠光이 어떤 施主의 淸平祥吉을 기원하면서 사경한 것이다. 『延壽命經』, 『續命經』, 『天請問經』 3종의 경전을 모두 49권 분량으로 필사하여 공양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¹⁸⁾

『延壽命經』, 『續命經』, 『天請問經』 이 3종의 경전을 함께 묶어 필사하는 형태는 北8247號, 斯5531號에서도 보인다.

③ 津藝193

五代 後周시기에 어떤 공양주의 어머니 馬氏를 위해 필사된 경전이다. 본 경전은 四七祭를 위해 필사된 사본으로 初七祭에서 四七祭까지 올린 『佛說無常經』, 『佛說水月光觀音菩薩經』, 『佛說呪魅經』, 『佛說天請問』의 합본이다. 『天請問經』은 네 번째 遷度祭에 작성되었다.¹⁹⁾ 顯德5(958)년 3월 1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매 七祭마다 亡者의 명복을 비는 발원기와 함께 연이어 필사되었으며 온전한 권축장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또한 필사본의 배면에 包首가 있는데 ‘佛說無常經等七卷’이라는 表題 아래 ‘爲亡母追福每祭一卷’이라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복을 비는 목적으로 제작된 사경임을 밝혔다.

18) “維大周顯德陸年四月八日 瓜州永典禪院禪師惠光發心敬寫 延壽命經 續命經 天請問經 三卷計寫肆拾玖卷 同發心施主 報宜淸吉 永充供養。”

19) 天津市藝術博物館 編, 『天津市藝術博物館藏 敦煌文獻』(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1998), 92. “廿八日是四七祭願以家母馬氏作福一一見到目前災障消滅領受福田一心共養。”

3.2 大藏經本 「天請問經」의 校勘

3.2.1 內容의 校勘

大藏經으로 조성한 刊本 「天請問經」의 교감은 고려대장경의 初雕本(1011~1087)과 再雕本(1236~1251)을 중심으로 하며, 아울러 다른 한문대장경과의 차이도 살펴본다. 그리고 내용의 교감 즉 經文 文句上的 차이점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간본 이전 시기에 필사·유통되었던 敦煌寫本도 비교대상에 포함시켰다. 교감의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잡았는데, 첫째 경문의 文句이며 둘째 字形이다. 경문의 문구는 글자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자형은 판각된 자형의 차이를 대교해 보겠다.

교감에 이용된 고려대장경 初雕本은 일본 교토 南禪寺 소장본이며, 현전하는 「天請問經」 중 가장 이른 시기의 刊本이기도 하다. 再雕本은 해인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판의 인본이며, 初雕本과 再雕本 모두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²⁰⁾에서 제공하는 원문이미지를 자료로 삼았다.

고려대장경 외에 한문대장경으로 간행된 「天請問經」은 원문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延聖院大藏經局 編, 『磧砂大藏經』 36, 台北: 新文豐出版公同, 1987 판본을 기준으로 하였다.²¹⁾ 한문대장경으로 간행된 「天請問經」은 북송대의 개보장을 시작으로 약 18종이²²⁾ 있었으나 이 중 많은 판본들이 유실되어 현재 원문이 전하는 판본은 1/3에 불과하다. 그리고 영인본으로 출간된 것은 磧砂藏²³⁾이 유일하다. 적사장 외의 현전 漢譯대장경의 원본형태를 살펴볼 수 없었으나 中華書局, 『中華大藏經』 36卷, 中華書局出版, 1984. 457쪽에 수록된 「天請問經」의 校勘記

20) <<http://kb.sutra.re.kr>>.

21) 현재 간행된 대표적인 한문대장경 영인본으로는 中華書局, 『中華大藏經』 1-106(北京: 中華書局出版, 1984)이 있다. 趙城藏(1148~1173)을 기초로 편집되었으며 趙城藏의 缺失부분을 고려대장경으로 보충하였다. 「天請問經」은 제36권의 457면에 고려대장경 재조본의 영인본으로 실려 있다.



22) 童瑋 編, 『二十二種大藏經通檢』 (北京: 中華書局, 1997), 575.

23) 磧砂藏은 南宋에서 元代(1225~1322)에 걸쳐 조성된 중국의 대장경으로 磧砂라는 명칭은 이 대장경이 처음 조성된 지역인 남송의 평강부 陳湖의 州名에서 유래한다.

를 참고하여 교감의 내용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敦煌本은 내용의 교감부분에 이용하였다. 현재까지 공개된 돈황유서 중 『天請問經』의 간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서 3장 1절에서 소개한 바 있는 18종의 사본을 교감의 자료로 삼았고 그 중 연대가 밝혀진 伯2374와 津藝193을 중심으로 하였다.

<표 6> 「天請問經」의 내용 교감

	敦煌本 津藝193 (958)	敦煌本 伯2374 (959)	初雕本 (1011~1087)	再雕本 (1236~1251)	磧砂藏 (1231~1322)	『中華大藏經』 校勘記 참조
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唐 三藏沙門玄奘奉 詔譯</div> 普寧藏, 洪武南藏, 永樂南藏, 徑山藏, 清藏
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却 坐一面</div> 洪武南藏, 永樂南藏, 徑山藏, 清藏

	敦煌本 津藝193 (958)	敦煌本 伯2374 (959)	初雕本 (1011~1087)	再雕本 (1236~1251)	磧砂藏 (1231~1322)	『中華大藏經』 校勘記 참조
③						
④						能扶 普寧藏, 洪武南藏, 永樂南藏, 徑山藏, 清藏
⑤						

① 역자사항

磧砂藏(1225~1322), 普寧藏(1277~1279), 洪武南藏(1372~1398), 永樂南藏(約1408~1419), 徑山藏(1589~1676), 清藏(1735~1738)에는 ‘唐三藏沙門玄奘奉 詔譯’이라고 역자사항의 표기되었고 고려대장경에는 ‘大唐三藏法師玄奘奉 詔譯’라고 표기되어 있어 용어상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비교 대상 문헌 중 앞선시기의 판본인 고려장 초조본의 표현은 唐이라는 국명에 ‘大’자를 붙이고 단순히 수도자, 출가자 比丘를 의미하는 ‘沙門’보다 불법에 정통한 스님에게 붙이는 ‘法師’라는 용어를 붙이고 있다. 그리고 현장법사의 생존시기에서 멀지않은 후대에 쓰여진 돈황사본에서는 2건 모두 시대를 밝히지 않았다. 가장 근래에 편찬된 일본의 大正

新脩大藏經(1924~1934)에는 고려대장경과 동일하게 ‘大唐三藏法師玄奘奉 詔譯’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敦煌本 伯2374號에는 ‘三藏法師徽譯’, 津藝193에는 ‘三藏法師玄奘奉 詔譯’으로 표기되었다.

② 住/坐

고려장 초조본과 재조본의 ‘住’자는 磧砂藏, 洪武南藏, 永樂南藏, 徑山藏, 淸藏에서는 ‘坐’자로 인쇄되었다. 敦煌本도 대부분 坐 또는 座로 필사되어 있으며, 住자로 필사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③ 爲樂/安樂

초조본 ‘少欲最爲樂’ 구절의 ‘爲樂’을 보면, 재조본에서 ‘安樂’으로 교정하였고, 재조본을 비롯한 敦煌本, 磧砂藏에 모두 ‘安樂’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초조본의 오류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초조본이 북송 開寶藏을 저본으로 하였다는 기존의 설에 입각하여, 宋本에 爲樂으로 표기되었던 것을 고려 초조본에서 그대로 따랐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④ 能浮/能扶

고려장의 ‘能浮’를 磧砂藏, 普寧藏, 洪武南藏, 永樂南藏, 徑山藏, 淸藏에서는 ‘能扶’로 간인했다. 敦煌本과 대교해 보면 모든 본이 고려장과 동일하게 ‘浮’로 표기되어 있다. 처음 한역되었을 때는 ‘浮’자를 썼다가 후대로 가면서 ‘扶’자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⑤ 多有/有多

이 부분은 적사장을 제외한 모든 판본 및 사본에서 多有로 표기되었다. 따라서 有多라는 글자의 倒置는 적사장만의 특징이라 하겠다.

3.2.2 字形의 校勘

자형의 교감은 初雕本와 再雕本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고 이어서 고려장과 적사장의 자형을 비교해 본다.

<표 7> 「天請問經」의 字形 교감

	初雕本 (1011~1087)	再雕本 (1236~1251)	磧砂藏 (1231~1322)		初雕本 (1011~1087)	再雕本 (1236~1251)	磧砂藏 (1231~1322)
①	竟	竟		⑬	礼	礼	禮
②	仗	杖	仗	⑭	為	為	為
③	第二張 (丈)	第二張		⑮	盜	盜	盜
④	擔	擔	善	⑯	富	富	富
⑤	所	所	所	⑰	最	最	最
⑥	間	間	間	⑱	屬	屬	屬
⑦	抗	抗	抗	⑲	惡	惡	惡
⑧	往	往	往	⑳	宜	宜	宜
⑨	珍	珍	珍	㉑	熱	熱	熱
⑩	經	經	經	㉒	世	世	世
⑪	來	來	來	㉓	碎	碎	碎
⑫	詣	詣	詣	㉔	斷	斷	斷

먼저 고려대장경의 초조본과 재조본의 자형을 對校해 보면, ①의 ‘竟’자는 고려장 『天請問經』이 속해 있는 函次를 표시한 字號이다. 참고로 적사장의 函次는 고려장과 다르며, 學함에 해당한다. 초조본을 보면 竟자의 마지막 획이 빠져있다. 이러한 竟자의 결획은 避諱의 흔적이다. 피휘는 문헌의 저작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주요한 감정 요소 중 하나이다. 竟자의 피휘는 宋本系의 대표적인 國諱이다.²⁴⁾ 초조본은 중국의 北宋版과 契丹版을 底經으로 조성되었으며, 대부분이 북송판 즉 開寶勅版大藏經을 저본으로 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리고 북송판을 저본으로 판각한 판본들 중에서도 피휘자의 결획을 보충해 완전한 글자로 새겨 넣은 경우가 많다.²⁵⁾ 하지만 적어도 피휘가 발견되는 인본은 송본을 저본으로 하였다는 증거가 되며, 초조본의 竟자 피휘는 초조본 『天請問經』의 저본으로 송대 개보칙판이 쓰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②에서 杖과 仗의 木변과 人변의 차이는 경문의 본문 내용 중에 나오는 자형 중에 유일한 차이점이다. ④~⑭는 글자의 형태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積砂藏과 비교해 보면 초조본과 재조본 자형의 유사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이는 고려장 재조본 『天請問經』이 초조본의 번각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획의 길이가 약간 짧고 긴 정도를 제외한다면 한 글자를 구성하는 획과 획 사이의 간격이나 비례, 위치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도 번각본임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③에서 張次를 표기하는 글자가 초조본은 丈자로 재조본은 張로 표기되어 있다. 장차는 매 장마다 표기되는데, 두 판본 간에 일관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초조본과 재조본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고려장과 積砂藏의 자형을 비교해 보면, 먼저 ③~⑨는 자형이 다른 글자들이고 ⑩~⑭는 획을 생략한 글자들이다. 대체적으로 고려장은 획을 생략한 자형이 적사장은 획수를 모두 갖추어 쓰는 자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天請問經』 초조본 함차에 避諱로 초조본은 송대

24) 김기화·이재영, “南禪寺 所藏 初雕大藏經의 形態의 特徵,” 『日本 南禪寺 所藏 高麗 初雕大藏經 研究』(書誌學會春季學術發表論集, 2010), 27.

25) 南權熙, 『高麗時代 紀錄文化 研究』(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125-126.

의 개보칙판을 底本으로 하였으며, 재조본은 초조본의 일부 글자를 교정한 초조본의 번각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중국본 대장경인 磧砂藏과 비교해 보면 적사장은 정자를 고려장은 필획이 생략된 이체자를 사용한 점이 특징적이다.

3.3 「天請問經」의 주석서와 變文

3.3.1 「天請問經疏」

疏는 불교경전에 대한 주석서의 문체로서 불경원문 각 구절에 註解가 붙여진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天請問經」에 대한 주석서인 敦煌本 「天請問經疏」는 新316,²⁶⁾ 伯2135號, 北6662號 3종이 조사되었다. 이 중 펠리오본과 북경본은 편찬자를 알 수 없으며, 新316는 高麗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수록되어 있는 文軌의 주석본이었다. 文軌는 玄奘과 同時代, 同地域에 살았던 승려로서 玄奘의 影響을 받은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원본은 전해지지 않지만, 日本 寬治 8(1094)년 興福寺沙門 永超가 편찬한 「東域傳燈目錄」 卷上 <諸宗章疏錄> 第二²⁷⁾에는 窺基, 靖邁, 懷素가 찬술한 3종의 「天請問經疏」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大乘基는 중국 法相宗의 開祖인 慈恩大師 窺基(632~682)를 이른다. 규기는 「天請問經」이 번역되었던 해인 648년 17세의 나이에 玄奘의 제자가 되어 梵語를 배웠으며, 25세부터 현장의 역경작업에 참여했다. 현장이 인도로부터 전한 唯識思想을 토대로 法相宗을 성립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靖邁는 「玄奘傳」을 썼으며 현장의 역경도량에 참여하여 綴文과 筆手를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현장의 번역원에 소속되었던 스님과 속인의 명단과 변경한 사실들을 기록했던 「古今譯經圖記」의 저자이며, 「天請問經」의 筆手였던 辯機와 함께 玄奘의 초기번역 대표작인 「瑜伽論」의 證

26) 이하 新316 「天請問經疏」의 내용 및 저자에 관한 사항은 <<http://taipei.ddbc.edu.tw>> 台北版電子佛典集成【經文資訊】藏外佛教文獻 第一冊 No.5 「天請問經疏」李際寧의 해제를 참고함.

27) 【大正藏】No.2183 「東域傳燈目錄」部別 目錄部全55. 1145.

文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현전하는 伯2135號, 北6662號 敦煌本이 이 중 한 사람의 저술일 수도 있으나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다. 『東域傳燈目錄』에 기록된 이 3종의 원문은 전하지 않는다.

현전본 『천청문경소』의 외형을 살펴보면 먼저 新316號는 中國北京圖書館藏本으로 首尾가 완전한 完本이다. 이에 비해 伯2135號는 도입부 일부가 결락되었으며 北6662號는 天神의 네 번째 질문 계승 이전 부분까지 결락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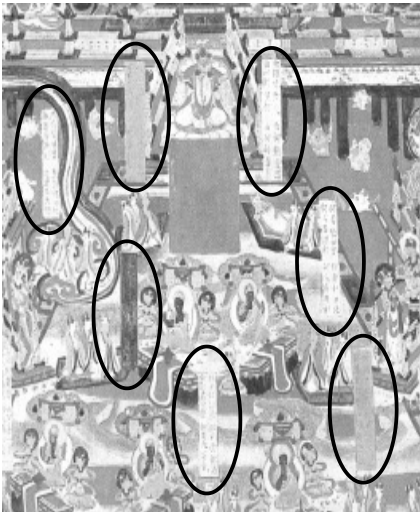
3.3.2 「天請問經變」

변문은 일반 대중에게 불법을 알릴 목적으로 생겨난 중국의 문학양식이다. 大衆 說法을 담담했던 승려를 俗講僧이라 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불교경전의 내용을 원전 그대로 강술하기보다 일반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흥미를 끌만한 내용으로 윤색하였다. 『天請問經』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상황의 전개를 연상시키는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질문과 대답의 내용에 동일한 단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두었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唱하며 공연하기에 적합한 경전이였다.

현재까지 공개된 돈황유서 중 변문은 스타인본 斯1397號와 북평본 北5408號 2점이 조사되었다. 모두 문헌의 背面部에 필사되었다. 北5408號는 『妙法蓮華經』 卷第五 提婆達多品第十二에서 從地踊出品第十五까지의 내용이 필사된 사본의 뒷면에 『思益梵天經變』, 『天請問經變』, 『梵王經』이 순서대로 쓰여 있다. 『사의 범천경』은 불경 중에서도 소설적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어 속강화본인 변문으로서 적합한 경전이였다. 北5408號는 『天請問經變』의 내용 중 천신이 부처님 앞에 등장하는 장면을 설명하는 도입부를 포함하여 3번째 문답의 계승부분까지 경문이 필사되었으며, 바로 이어서 술을 빚고 마시는 일, 가축을 사육하는 일, 무기를 만드는 일, 良人奴婢의 매매, 장례에 사치하는 일 같이 佛子들이 생활 속에 범할 수 있는 금기의 내용이 講 부분에 서술되어 있다.

斯1397號는 『天請問經變』이라는 제목이 명기되어 있지만 앞서 설명한 중국 문학양식의 하나인 변문이 아니라 榜題의 底稿로 작성된 사본이다.²⁸⁾ 여기서

榜題란 용어의 뜻을 설명하자면 먼저 變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變이란 단어는 變文이라는 중국 고전의 문체를 이르기도 하지만 불경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회화적으로 묘사한 그림을 의미하기도 한다. 榜題란 천칭문경의 내용을 회화적으로 펼쳐놓은 變 각 부분의 그림이 어떤 내용을 묘사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經文의 文句를 표시해 놓은 變의 한 요소를 이르는 용어이다. <그림 2>에 타원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방제이다.²⁸⁾ 그림 중간 중간에 직사각형의 공간을 두고 그 안에 글씨를 써 넣도록 되어 있다. 방제는 그림으로 표현한 경문의 해당 句節을 부분적으로 필사하거나 그 내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구를 짧게 적어 넣기도 한다.



<그림 2> 돈황석굴 천칭문경 벽화 榜題의 사례(第61窟 北壁)



<그림 3> 스1397號의 부분

28) 스1397號가 天請問經變의 榜題를 쓰기 위해 작성된 원고라는 내용은 王惠民, “關於「天請問經」和 天請問經變的幾個問題,” 『敦煌研究』(1994. 4), 174-184의 연구를 인용한 것임.
29) 岡田健, 『敦煌石窟』(東京: 文化學園·文化出版局, 2003. 1), 63.

榜題의 底稿인 斯1397號의 필사형태는 <그림 3>과 같이 경문의 각 구절 앞에 동그라미 표시가 붙어 있는 특징적인 형태를 보인다. 총 12개의 ○표시가 있으며 이는 방제에 기재할 각각의 구절을 구분해 놓은 것이다.

돈황유서가 발견된 돈황 막고굴에는 『천청문경변』이 벽화의 형태로 전해지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唐代 20점, 五代 12점, 宋代 6점 총 38폭이 발견되었다. 이로써 당대에서 오대시기에 『천청문경』은 적어도 돈황지역에서 흔히 유통되었으며, 大衆說法에도 즐겨 선택되었던 경전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결 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天請問經』은 중국의 대표적인 역경승 玄奘에 의해 645년 인도로부터 수입되고 648년 번역된 單譯經이다. 5言 偈頌 형식 안에 天神과 석가모니가 진리를 묻고 답하는 9편의 문답을 담아 기술하였다. 문장의 구성은 동일한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對句가 특징적이며, 대체로 修戒와 布施의 실천을 통해 福을 쌓으라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역대 漢譯佛經目錄에서 정리한 이 경의 계통은 처음 『大唐內典錄』(664년)에서 대승경전으로 분류되었다가 『開元釋教錄』(730년)에 이르러 소승경전부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玄奘의 門下生에 의해 편찬된 『大唐內典錄』에서 대승경으로 분류된 것은 단순한 錯誤라기보다 당시 『天請問經』이 어떠한 목적으로 한역의 대상으로 선택되고 번역되었는가를 추정할 근거로 볼 수 있었다.

내용적으로는 『出曜經』 卷第九 戒品第七과 상당 부분 일치하며 이 부분에 『雜阿含經』의 인용부가 있어 『雜阿含經』과의 관계도 긴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어서 현존본 『天請問經』을 敦煌本과 大藏經本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공개된 돈황유서 중 『天請問經』은 총 18건이 조사되었으며, 이 외에 『天請問經』과 관련한 문헌으로 변문 2건, 주석서 3건이 조사되었다. 연대가 확인되는 돈황본은 959년 伯2374號와 958년 津藝193이다. 津藝193은 冥福을 비는 발원문이며,

伯2374號는 長壽와 福을 비는 발원문이 경문의 말미에 붙어 있다.

현전하는 돈황본은 짧은 분량의 경전 몇 편이 합본된 형태가 주를 이룬다. 「佛說續命經」, 「佛說延壽命經」, 「摩利支天經」, 「佛說閻羅王經一卷」, 「佛說地藏菩薩經」, 「般若波羅蜜多心經」 등과 같은 경전들과 함께 필사되었다. 이 경전들의 내용으로 미루어 돈황본은 망자의 명복을 비는 供養物로서 寫經했거나, 長壽와 冥福을 비는 용도의 경문들을 모아놓은 책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大藏經本 「天請問經」의 교감은 고려대장경의 초조본과 재조본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자형과 글자의 變異를 근거로 초조본은 북송의 開寶勅版大藏經을 底本으로 하였으며, 재조본은 초조본의 일부 글자를 교정한 초조본의 翻刻本이라는 기존의 일반론이 「天請問經」에도 적용됨을 확인했다.

끝으로 「天請問經」의 주석서와 강창대본인 變文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석서인 「天請問經疏」는 3종이 조사되었는데 그 중 新316은 高麗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수록되어 있는 文軌의 註釋本이었다. 이외에 현재 원본은 전해지지 않으나 「東域傳燈目錄」에서 窺基, 靖邁, 懷素가 찬술한 3종의 天請問經疏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天請問經變」은 2점이 전하는데 北5408號는 「天請問經變」, 「思益梵天經變」, 「天請問經變」, 「梵王經」의 合本이며, 斯1397號는 「天請問經」의 내용을 회화적으로 펼쳐놓은 變相을 설명하는 榜題의 底稿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현전하는 「天請問經」은 다양한 종류의 문헌자료가 전하고 있다. 본고는 이 문헌자료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사전적 기술에 머물렀던 단편적인 정보를 심화하였고, 대장경 刊本인 고려장 초조본과 재조본의 관계와 고려장의 특징을 원문의 對校를 통해 확인하였다. 아울러 경전으로부터 파생된 주석서와 변문의 내용 및 불경정본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天請問經」은 내용적으로는 부과경전이지만 대승적 목적에 입각해 번역의 대상으로 선택되었으며, 불교사상을 설명하는 이론서라기보다 대중에게 실천적인 教義를 설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번역된 대중불교적 성격의 경전임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 黃永武 編. 『敦煌寶藏』.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民國75年[1986].
- 中國國家圖書館 編; 任繼愈 主編. 『國家圖書館藏 敦煌遺書』.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5-2008.
- 天津市藝術博物館 編. 『天津市藝術博物館藏 敦煌文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1998.
- 俄羅斯科學出版社東方文學部 編. 『俄藏敦煌文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8.
- 法國國家圖書館 編. 『法藏敦煌西域文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 延聖院大藏經局 編. 『磧砂大藏經』 1-41.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1987.
- 中華書局. 『中華大藏經』 1-106. 北京: 中華書局出版, 1984.
- 小野玄妙. 『佛書解說大辭典』. 東京: 大東出版社, 昭和43.
- 童瑋 編. 『二十二種大藏經通檢』. 北京: 中華書局, 1997.
- 佛書刊行會 編. 『大日本佛教全書』 第1冊: 佛教書籍目錄第1. 東京: 佛書刊行會, 1913.
- 岡田健. 『敦煌石窟』. 東京: 文化學園·文化出版局, 2003.
- 이종철. 『중국 불경의 탄생: 인도 불경의 번역과 두 문화의 만남』. 서울: 장비, 2008.
- 李殷漢. “玄奘의生涯와 譯經에 관한 研究.” 『宗教哲學論文選集』 172. 서울: 열린문화사, 2007.
- 남동신. “玄奘의 印度 求法과 玄奘像의 추이.” 『불교학연구』 제20호(2008. 8).
- 이상미. 『진각혜심의 계승문학』. 박이정, 2007.
- 미즈노 고겐 ; 이미령역. 『경전의 성립과 전개』. 서울: 시공사, 1996.
- 黃敏枝지음 ; 임대희역. 『중국 역사상의 불교와 경제』. 서울: 서경문화사, 2002.
- 鎌田茂雄 ; 鄭舜日 譯. 『中國佛教史』. 서울: 經書院, 1992.
- 平川彰 ; 楊氣峰 譯. 『佛敎研究入門』. 서울: 經書院, 1993.
- 千惠鳳. “初雕大藏經의 現在本과 그 特性.” 『大東文化研究』 11(1976).
- 南權熙. 『高麗時代 紀錄文化 研究』.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日本 南禪寺 所藏 高麗 初雕大藏經 研究』. 書誌學會春季學術發表論集(2010. 4).

유태규. “俗講의 盛行과 발전 考察.” 『中國小說論叢』 20(2004. 9).

王惠民. “關於「天請問經」和 天請問經變的幾個問題.” 『敦煌研究』(1994. 4).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 시스템. <<http://kb.sutra.re.kr>>.

台北版電子佛典集成. <<http://taipei.ddbc.edu.tw>>.

CBETA 中華電子佛典協會. <<http://www.cbeta.org>>.

